

“아저씨! 아저씨! 큰일났어요. 큰일났어요.”

한마리의 애완견을 안고 동물병원으로 급하게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우리 개가 숨을 잘쉬지 못해요. 죽을러나 봐요”

의사가 개의 상태를 살펴보고는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개는 치료해 드릴테니 우리한테 맡기고 집으로 가지 말고 옆집으로 가세요.”

하고는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했다. 영문을 모르는 아주머니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옆집으로 갔다. 잠시 후 아주머니 집으로 경찰차와 119구급차가 급하게 들이닥쳤다. 약 5분 후 2층 구석에서 손가락 2개가 잘리고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도가 잡혀갔다.

개의 목에는 범인을 물고 늘어지면서 잘려진 손가락이 걸렸던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는 모르면 지나칠 수 있고 일어나면 대형사고와 평생을 치유할 수 없는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건사고가 항상 존재한다.

다양화되며 복잡해지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 전체 안전사고 유형중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에서 부모와 교사는 내자식과 학생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선진국보다 3.4배 높다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강한 반면 주의력과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스스로의 자기방어에 힘쓰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 인용해 보면, 선진국에 살고 있는 어린이 사망의 주요인은, 상해(injury)가 어린이 사망원인의 40%에 해당하며 OECD국가에서 2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교통사고, 고의적 상해, 익사, 추락, 화재, 중독, 기타 상해등으로 사망하고 있다.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사망률이 낮고 멕시코와 한국은 3~4배 높다. 또한 남자 어린이는 여자 어린이보다 사망률이 70% 더 높다. 발표내용중 중요한 사항은 상해로 인한 사망률이 70년대 20%선에서 근래 40%선까지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나는 화재·구조·구급등 재난재해의 현장에서 일하

는 소방관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자식들을 보내는 한 아버지로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안전사고와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초등학교·중학교에 교육을 나가면 방송실의 모니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이 자유분방한 자유시간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사회·국가가 생명과 희망의 울타리 공사를 거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 안전사고의 위험은 등교시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의 안전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스쿨존”이 있으나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녹색어머니들께서 노란색 깃발을 들고 매일 등교길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학교내 안전사고 중 체육시간·휴식시간이 사고 높아

사고 유형별로는 체육시간 사고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식중 18건, 교과시간 12건, 청소중 10건, 실습시간, 기타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60건, 중학교 52건, 고등학교 30건 유치원 15건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 학교 안전사고, 환경 바뀔 때 조심

학교 안전사고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하는 6~7월에 주로 발생했으며 운동회가 열리는 10월과 방학을 앞둔 12월, 바뀐 학교 환경에 적응하는 2월과 3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부산 학교안전공제회에서의 조사 내용〉

학교에서 발생한 2,212건의 안전사고를

▷ 시기별로 보면 6월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 254건, 7월 249건, 10월 239건, 2월 212건, 3월 176건 등 순이었으며,

▷ 학교별 학생수는 유치원생 33명, 초등학교 421명, 중학생 647명, 고교생 750명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활동량이 많을수록 발생 비율이 높았고,

▷ 시간별로 보면 휴식시간이 985명, 체육시간이 889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명, 수업시간 252명, 청소시간 104명, 실험 실습 시간이 32명 순이었다.

▷ 남학생이 1,654(74.7%)명으로 월등히 많았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사고 형태는 별차이가 없겠다는 생각이다.

◇ 유치원 · 초등학교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 놀이터 사고

- 여자아이의 긴머리가 놀이기구에 끼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묶어줘야 한다.

- 놀이기구에서 떨어지거나 끼인 아이를 함부로 움직이다 더 큰 부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19에 신고한다.

▷ 몸이 끼이는 사고

- 자전거 체인에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으므로 반드시 체인 덮개를 설치한다.

- 문틈은 스폰지로 막는다.

- 진공청소기 흡입구, VTR, 가구와 벽사이 등에 끼었을 때는 움직이면 관절이 부어 고통이 심해지므로 그대로 두고 119를 부른다.

▷ 에스컬레이터 사고 - 견학시 많이 발생

- 날이 빠진 채로 방치했다가 아이들의 신발, 양말 등이 빨려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단 끼이면 절단되는 경우가 많은 위험한 사고이다.

어른과 함께 손잡고 타야 하며(주의필요 교육), 한 칸에 4~5명의 어린이가 함께 올라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뛰어 다니지 못하게 한다.

▷ 음식물 사고

- 바나나, 찰떡 등 끈기있는 음식이 식도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 조금씩 떼어 먹는다. 물을 마시면 부피가 늘어나 기도를 막아 위험하다.

-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맨발을 삼키면 된다는 속설은 잘못이다. 오히려 가시를 건드려 식도를 상하게 할 수 있다.

▷ 추락사고

- 세계적으로 선진국 후진국 할것없이 사망률이 높은

사고로 항상 어른들이 구조적으로 학교의 창이나 아파트 등에 별도의 조정장치(안전장치)가 필요하다.

▷ 화재사고와 화상

- 1999년 6월 30일 씨랜드 화재사건등과 같이 어느장소를 막론하고 전기·가스와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항상 도사리는 위험요소로 사고가 발생하면 폭발과 확산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난다.

- 연기에 질식되고 화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에게는 성냥과 라이터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하며 전기 콘센트는 테이프로 막아야 한다.

- 어린이들이 예방하기 어려운 곳은 연기감지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 캠프시 안전한 장소 선택

- 끓는 물 등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 일단 차고 깨끗한 물로 차갑게 해야 하며 얼음은 피부세포를 손상시키므로 사용 금물, 환자를 안정시키고 119를 부른다.

◇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의 놀이터 사고 예방

▷ 정글짐 - 머리를 조심한다.

▷ 시소 - 타고 내릴 때 조심하고 탈 때는 발을 벌린다.

▷ 늑목 - 꼭대기에 서지 않는다.

▷ 미끄럼틀 - 차레를 지키고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

▷ 구름사다리 - 위로 걸어나가지 말고, 손을 놓지 않는다.

▷ 철봉 - 손을 바르게 하여 철봉을 잡아야하며, 손을 놓지 않는다.

▷ 킥보드·롤러스케이트·비비탄충등 - 안전검사 거친 것을 사용하며 차가 다니는 골목길은 절대 피한다.

이외에도 안전 불감증에 의한 대형사고의 피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학교 내의 전염병 발생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며, 학교 급식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늘고 있다.

현장학습과 다양한 체험학습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의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자율적 안전생활 실천을 위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전 예방 교육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모는 가정에서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처할 안전감각”을 평소에 길러줘야 한다. [7]

지 명 천 (강서구 소방서 홍보실장)